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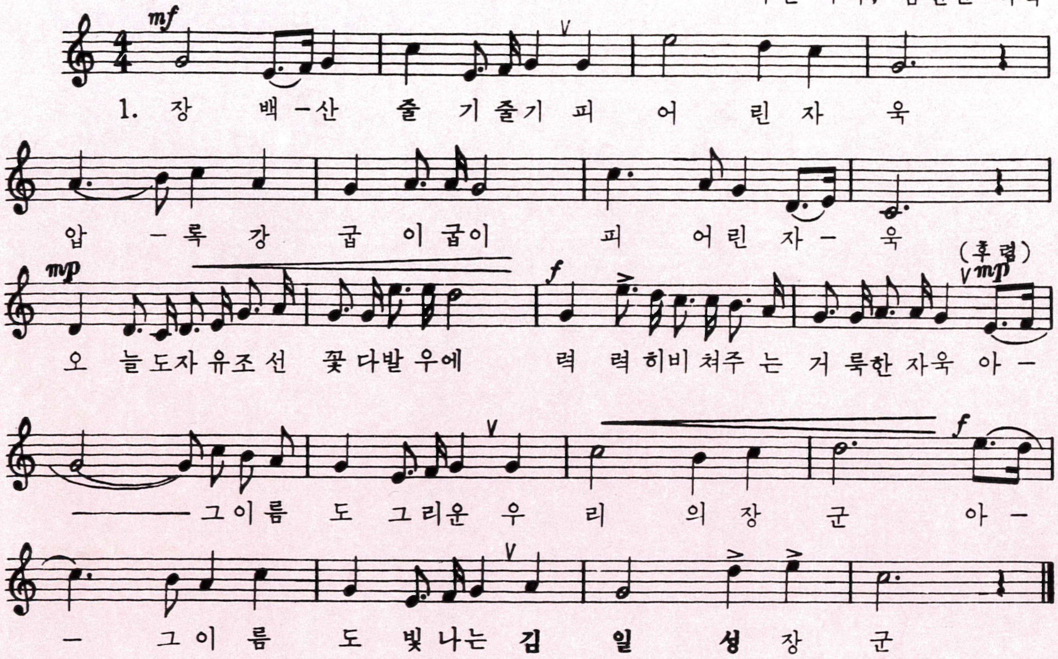


1994. 7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리찬 작사, 김원균 작곡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 생 할 것 이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있는 력사적인 이 시각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뜻하지 않게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가장 어려운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천재이시였으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주체의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시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식의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으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험산준령을 넘으시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승리의 한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령도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생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로지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계속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4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결론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시였다.

겹쌓이는 정신적인 과로로 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였다.

즉시에 모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쇼크가 증악되여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하시였다.

1994년 7월 9일에 진행한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였다.

1994년 7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수천만 우리 인민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영원히 계셔야 하실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이 가슴아픈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였지만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의 빛나는 존함과 그 고결한 인품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견결히 고수해오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민족적영웅의 생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시기는 민족의 머리우에 망국의 비운이 서린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시며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시고 우리 인민에게 광복의 새봄을 안겨주시였다. 그것은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불멸의 공적이였다.

우리 조국앞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마침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여오시였으며 가장 강대한 적들과의 대결에서 꺾이지 않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전생애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리상이 꽃피는 인민의 참다운 락원을 건설해오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영광찬란한 년대기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며 사회주의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속에 계시였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억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인민들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전생애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재부를 튼튼히 마련하여오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생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로동당과 혁명의 굳고 억센 혈통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수령의 위업 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 로동당과 인민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모든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군사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위력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력사는 참다운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일찌기 항일의 나날에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 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전생애는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의 한생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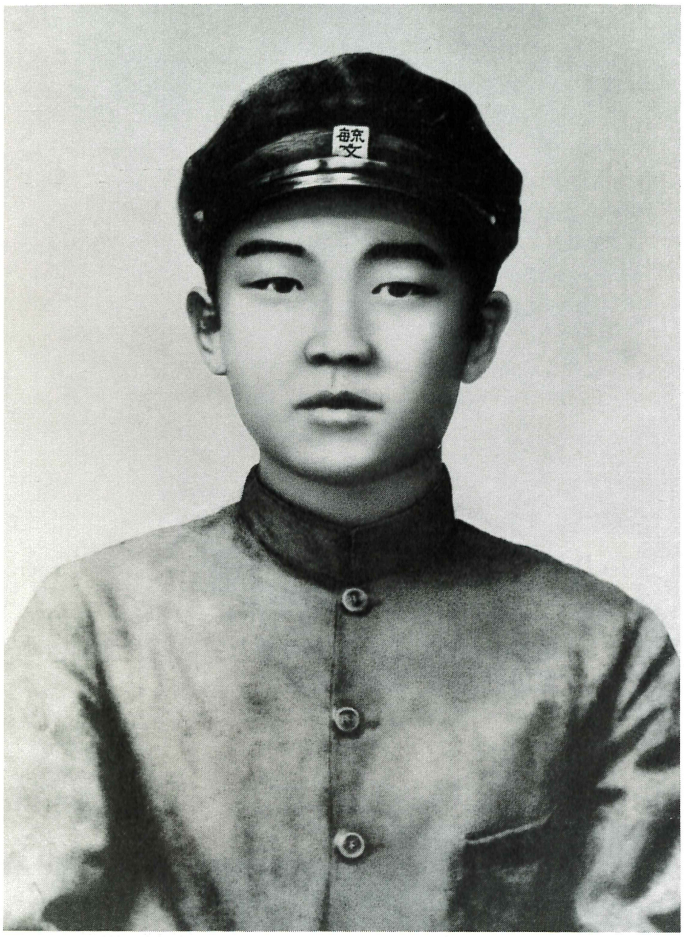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세계의 반제자주위업에 큰 관심을 돌리시고 그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이 백전백승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80여성상 그처럼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시였으나 수령님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빛나는 한생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길림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27년)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25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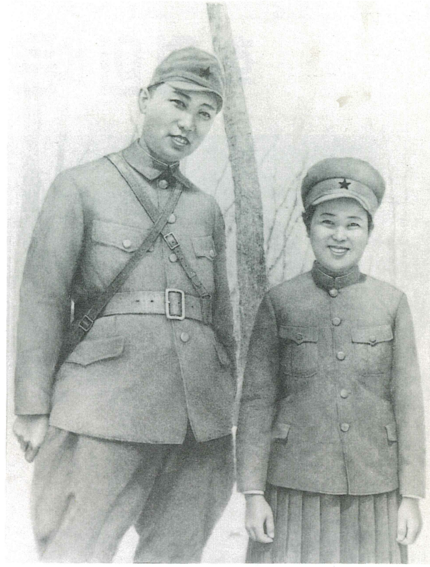


지하투쟁을 앞둔 시기 고재룡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 김정숙동지와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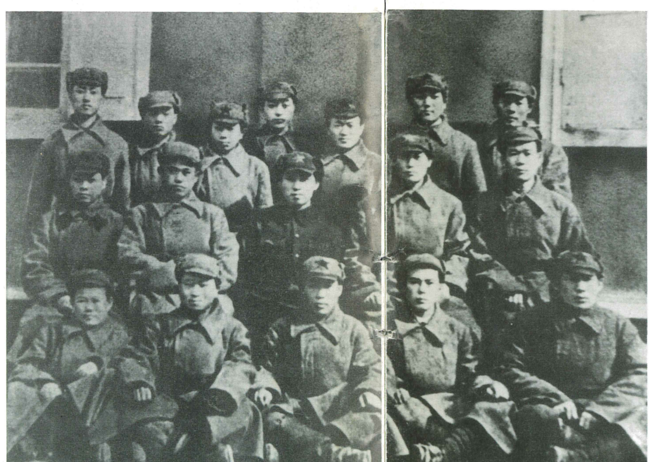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소부대활동시기 김정숙동지와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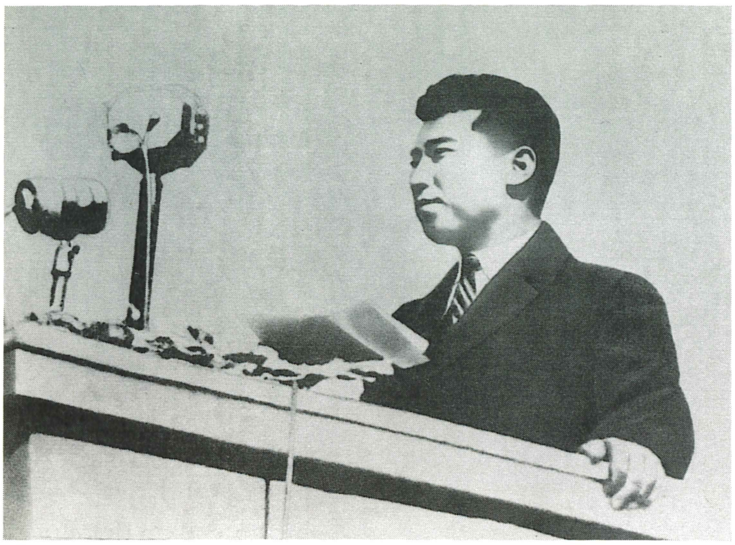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두번째줄 가운데 앉아계시는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앞줄 왼쪽으로
부터 두번째 앉아계시는분)

해방의 은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5년 10월 14일)



새 조국 건설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
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5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6년 5월 21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기관단총을 간부들에게 수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8년 9월 8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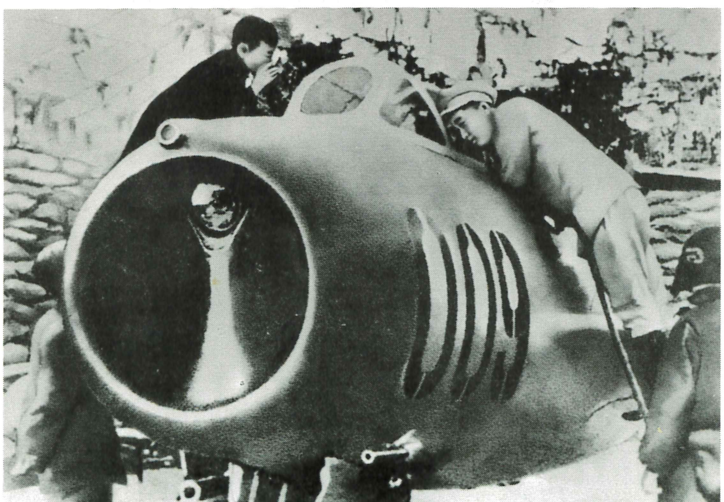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0년 6월 26일)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0년)



조선인민군 공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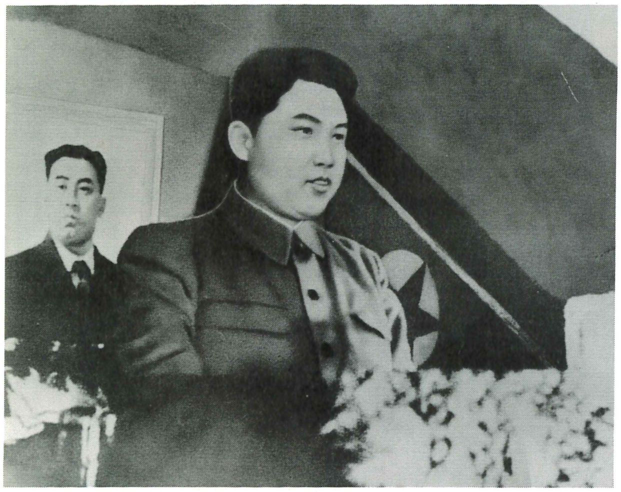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1년 6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0년 12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3년 7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보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1년 11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3년)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1년)



대동군 원화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2년)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3년 8월 5일)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을 고무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5년 4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순안군 원화농업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6년 2월 12일)



김일성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5년 7월 1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6년 4월 23일)



강서군 태성리 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7년 8월 27일)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6년 12월 28일)



남포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어로공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청진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9년 3월 10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1년 9월 11일)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1년 12월 6일)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풍년든 온천벌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4년 2월 11일)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0년 10월 10일)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3대혁명소조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4년 9월 24일)

조국통일의 구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의 명망있는 통일애국인사 문익환목사를 만나시고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1989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요지)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2년 5월 3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3년 6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접견하시였다.(1994년 6월)



김구를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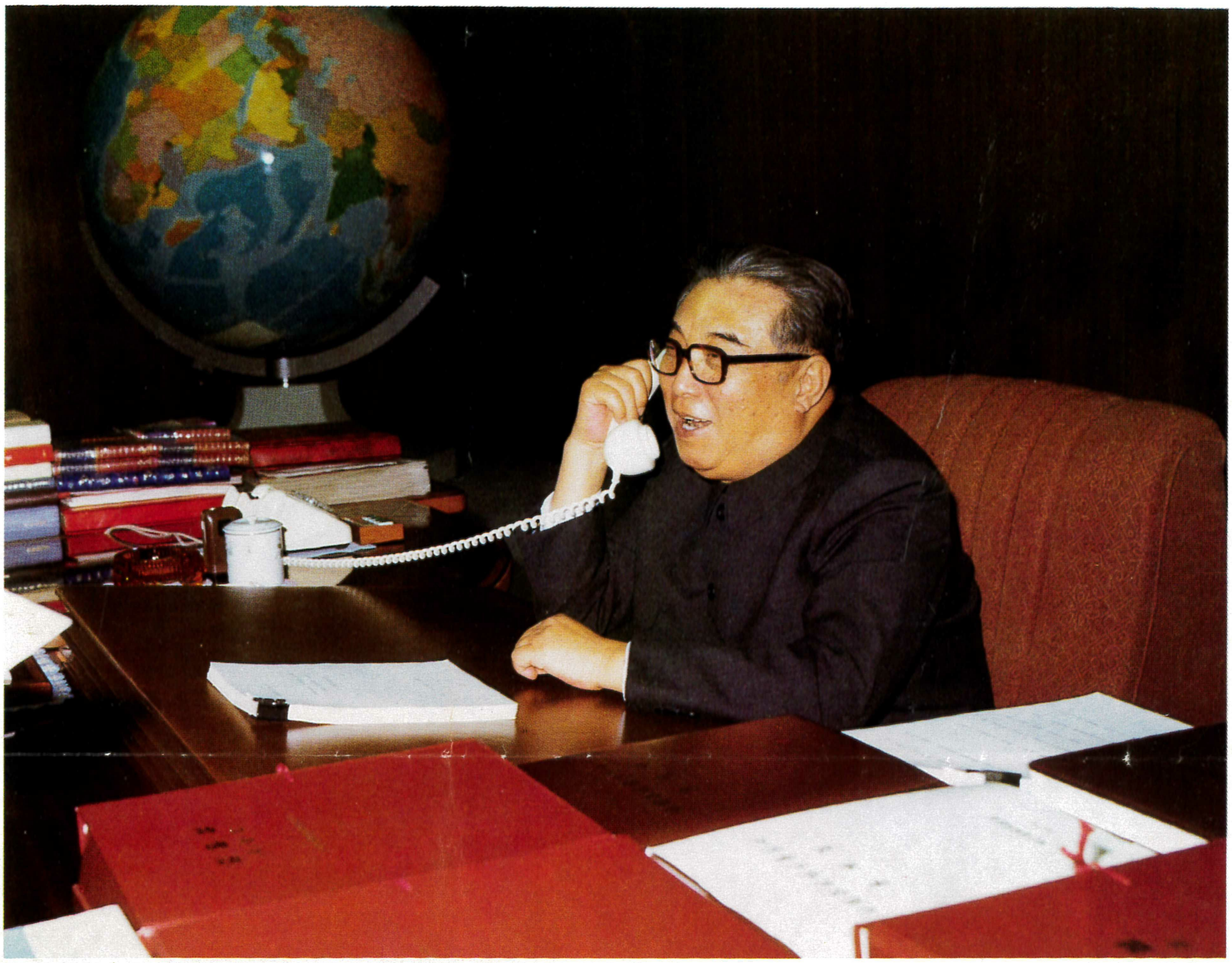


최덕신선생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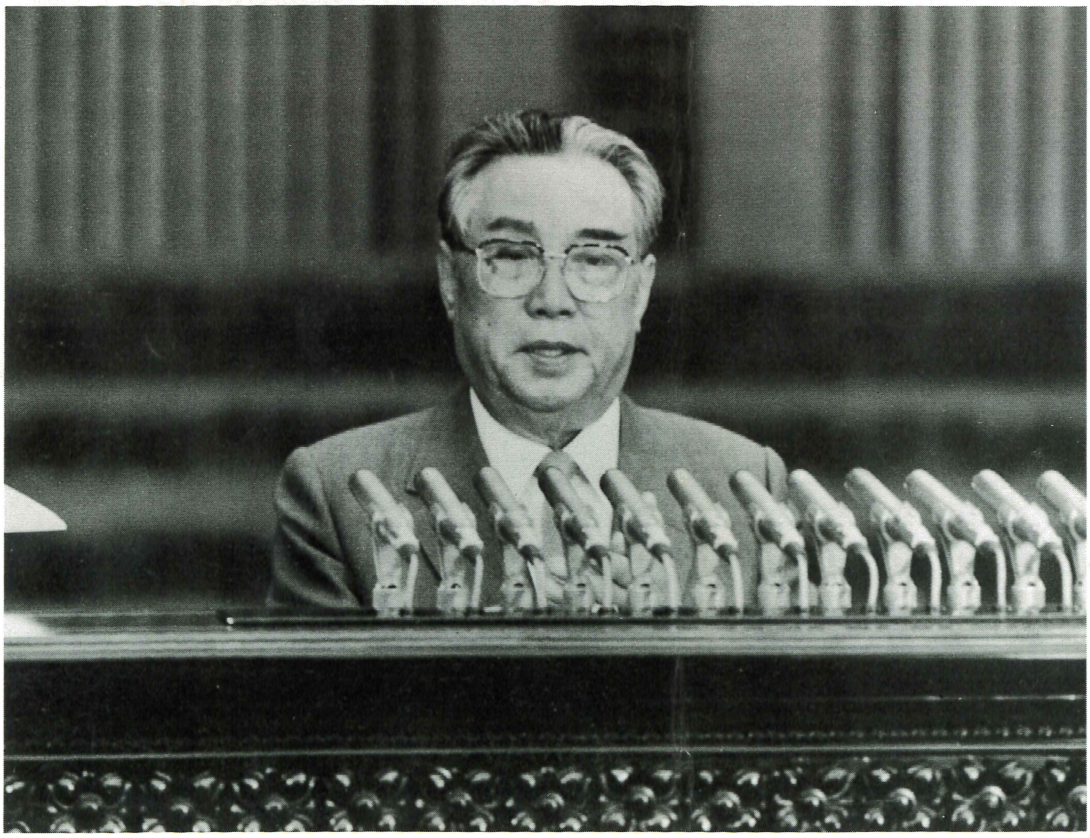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1987년 10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7년 6월)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3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나라 교육 및 문화 부장들을 접견하시고 신흥세력나라들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대책적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1983년 9월)



우리 나라를 찾아온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7년 4월 15일)

자애로운 어버이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1년 4월)



함흥시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들을 고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9년 3월 25일)



안변군 천삼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9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 김성락선생을 접견하시고 오찬회를 마련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청년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비서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 령도하고있습니다. **김정일**비서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저히 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령도는 곧 나의 사상과 령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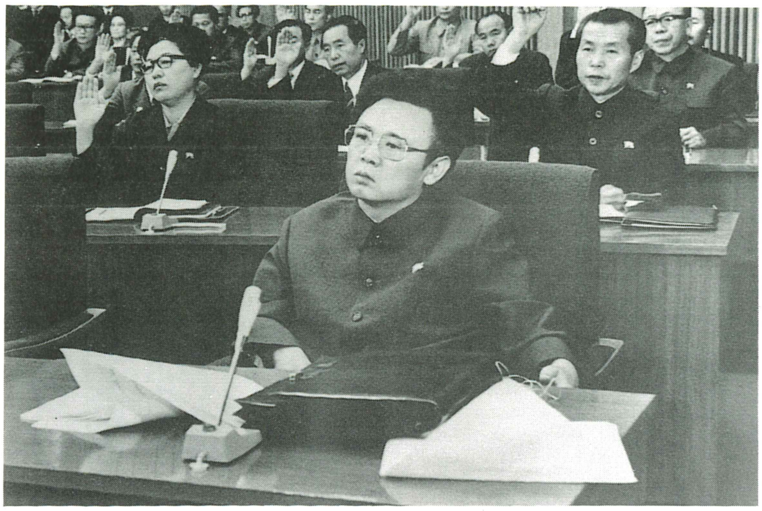
김 일 성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푸른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탄생하여 어느덧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1992. 2. 16 김일성

白头山頂正日峯
小白水河碧溪流
光明星誕五十週
皆贊文武忠孝備
万民稱頌齊同心
欢呼声高震天地
一九九二.二月十六日 金日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쓰신 친필송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 참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80년 10월)

회의에서는 그분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모시였다.



당, 국가 책임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1985년 5월)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1981년 5월)



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1988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 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간직될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연구조직들

— 1969년 4월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첫 주체사상연구조직 결성

— 1978년 2월 꼬스따리까 싼호쎄에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창립

— 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 1980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창립

— 1985년 4월 시에라레온 프리타운에서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창설

— 1985년 10월 프랑스 빠리에서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창립

— 오늘 세계적으로 100여개 나라에서 1,0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결성운영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 1930년 6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994년 7월까지 보고, 연설, 론문, 서한, 담화, 대담, 축하문 등 공개된 로작 1,800여건

— 세계 90여개 나라 출판사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60여개 민족어로 번역출판

— 199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만도 1년동안 세계 120여개 나라의 1,000여종의 출판보도물들이 대서특필로 보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받으신 최고훈장과 메달

— 세계의 70여개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을 받으시였다.

— 세계 여러 나라의 30여개 도시들에서 명예시민칭호를 드리였다.

—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이름있는 대학들에서 명예박사, 교수 등의 학위, 학직을 수여해드리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존함

— 세계 100여개 나라의 450여개 거리, 기관, 단체들이 그분의 존함을 모시였다.

—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육종하고 명명한 《**김일성화**》는 세계의 50여개 나라들에서 만발하고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받으신 선물

—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정당, 국회,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드린 선물 7만여점

— 1992년 4. 15에만도 당 및 국가, 정부 수반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130여개 나라의 420여개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그분께 1,390여점의 선물을 드리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그분의 거룩한 존함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며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온 누리에 영원무궁토록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여해드린 훈장의 일부



이전 쏘련 《레닌훈장》 (1972년 4월)



꾸바 《호쎄마르띠훈장》 (1986년 3월)



리비아 《위대한 9월 1일훈장》(198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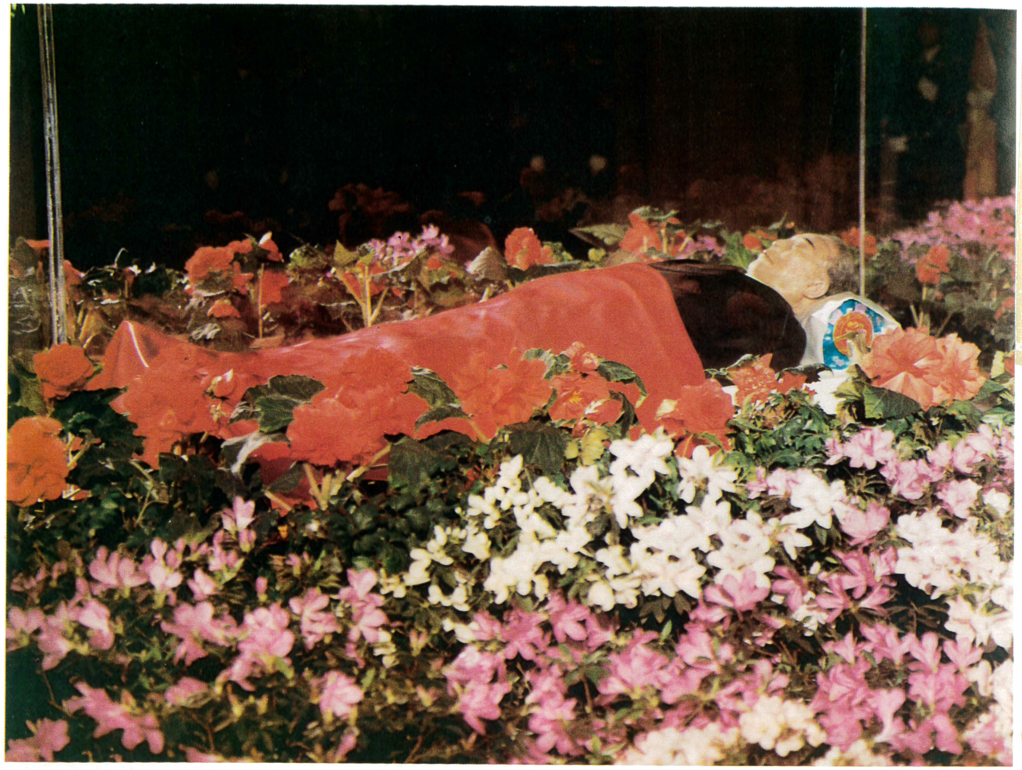


가이아나 《특공훈장》 (1978년 4월)



수리아 《대우마이예훈장》(1974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안치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1일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조의식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참가하였다.

조의식장인 금수산의사당은 엄숙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여있었으며 붉은 기폭에 덮여있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그대로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며 근엄하시였다.

령구앞에는 80여성상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여 우리 인민이 그분께 올린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 메달들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명의로 된 화환을 비롯한 많은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이 보내여온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옆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8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회주의조국의 현대력사를 빛나게 개척하시고 조선인민의 운명을 일대 륭성과 번영의 새 시대에로 이끌어주신 탁월한 령도자이신 우리 인민의 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각계층 근로자들

애로운 어버이 **김일성**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묵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찾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의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7월 11일에 이어 7월 13일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평양시내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다시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7월 14일과 17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고 령구옆에 호상을 서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량일간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을 조의방문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의 조의대표단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일행, 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일행, 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일행, 상월선생의 자녀일행, 풍중운의 자녀일행, 장울화동지의 동생 장울민일행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해외동포 조의대표단과 많은 해외동포 조객들이 참가하였다.

조의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아 위문을 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지난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금수산의사당에서 진행된 조의식에는 수도 평양과 전국의 11개 도(직할시), 200여개의 시, 군(구역)에서 온 각급 기관 일군들과 로동계급, 협동농민들, 지식인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과 사회안전원들 수십만명이 참가하였다.

조의방문에 참가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것이 너무도 애석하고 절통하여 어버이 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면서 오래동안 령구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조의참가자들은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힘과 용기로 바꾸어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분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이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항일혁명투사들



각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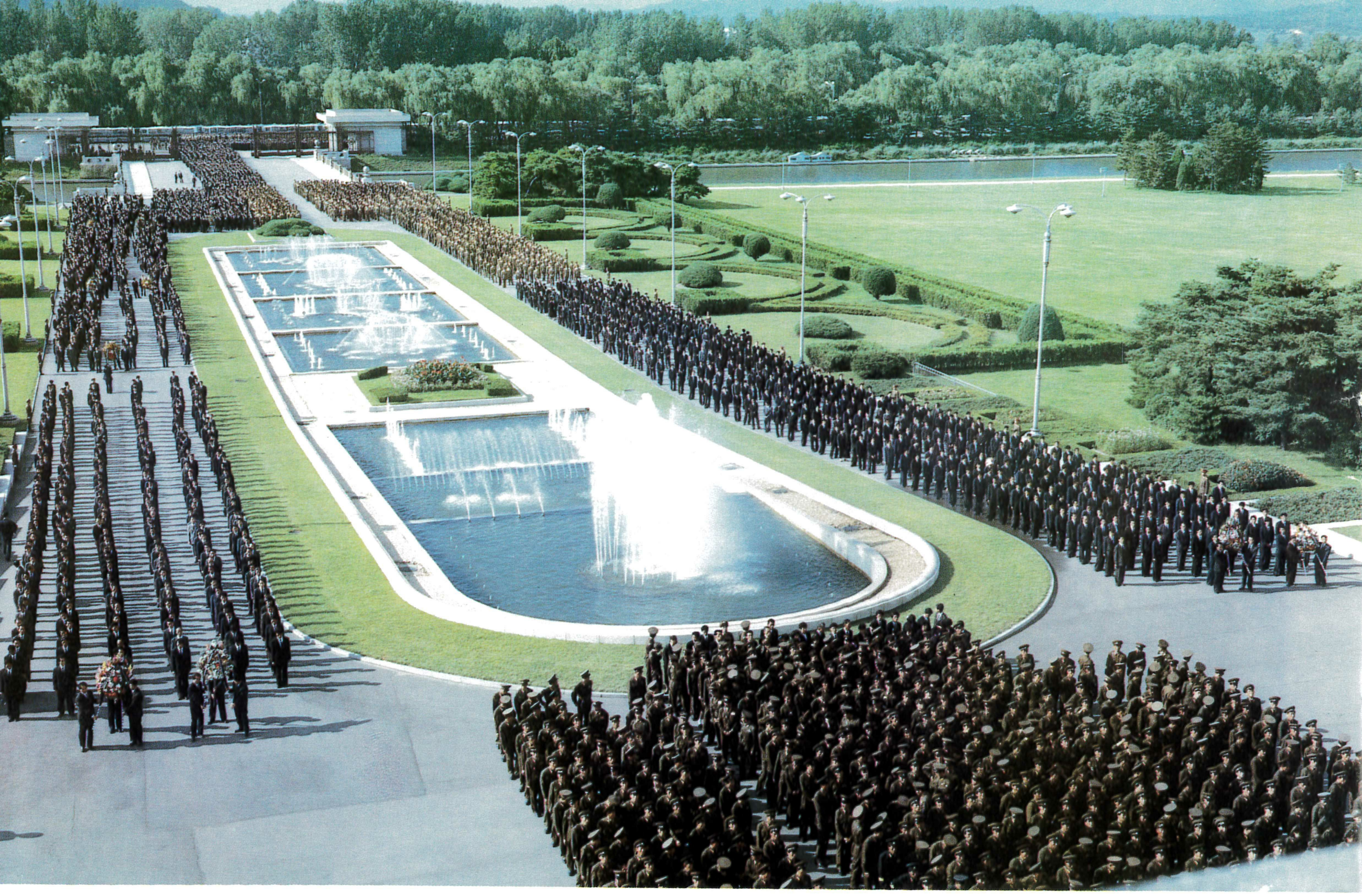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목메여 우는 근로자들



어버이수령님을 목메여 부르며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는 인민군장병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리인모동지가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찾아오는 조객들로 장사진을 이룬 금수산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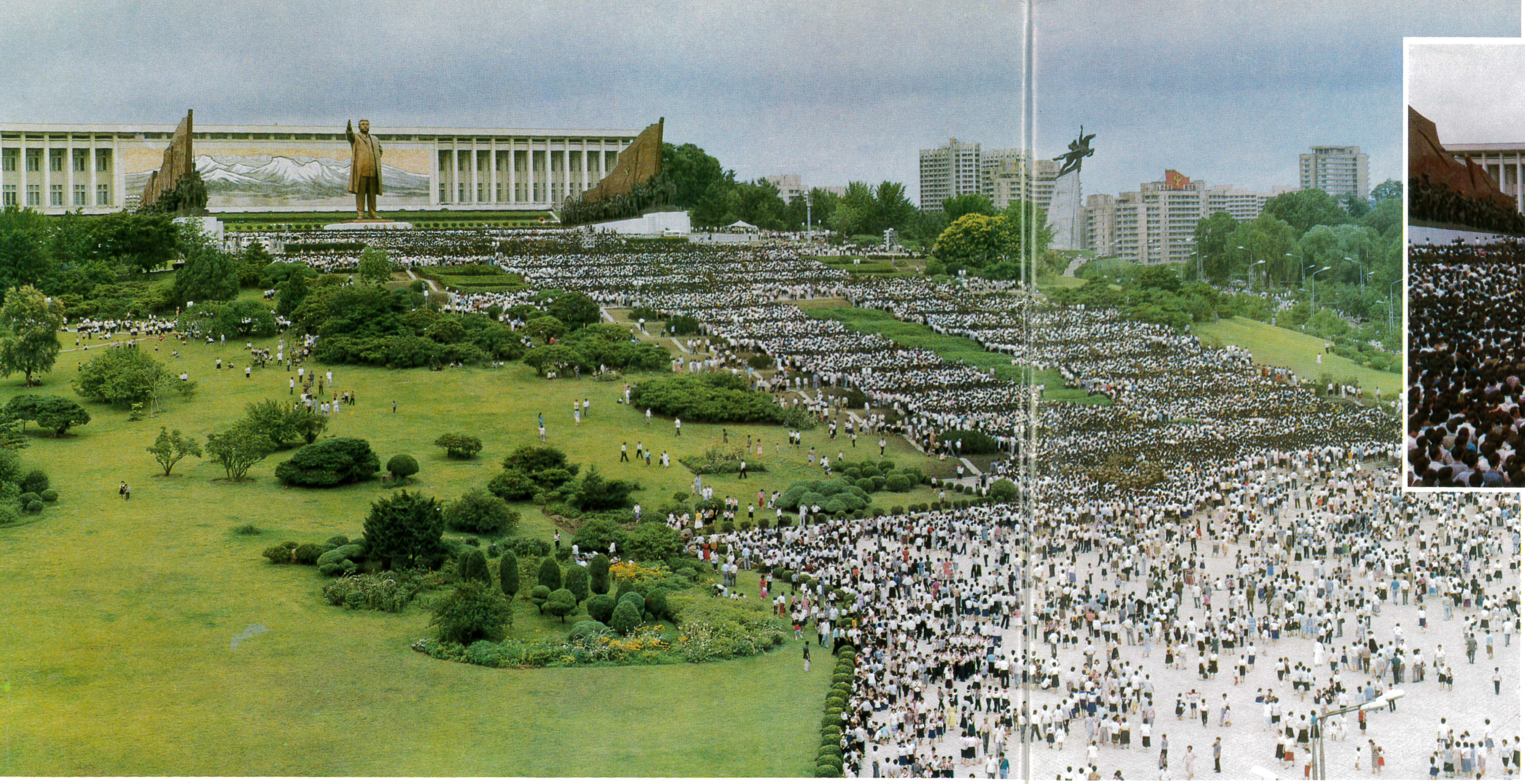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찾은 총련의 조의대표단 성원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에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해외동포들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는 외국의 벗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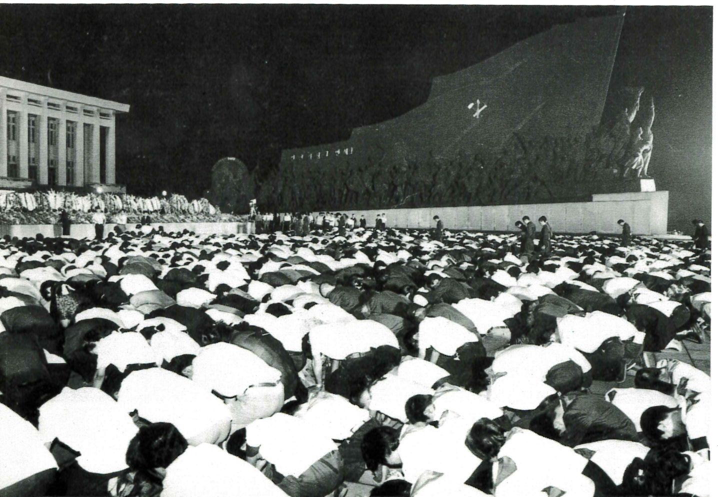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높이 모신 평양의 만수대언덕은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고 날마다 찾아오는 평양시와 각지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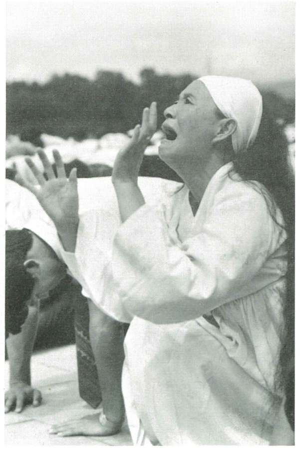
낮에 밤을 이어

애도기간 연 2억1,200 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 조의표시

낮에 이어 밤에도 만수대동상을 찾아 목메여우는 평양시민들







가슴이 터지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애타게 부르며 통곡하는 인민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 최대의 슬픈 소식은 온 나라와 인민을 삽시에 비분의 바다속에 잠기게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것과도 같은 청천벽력같은 전혀 뜻밖의 소식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고 하면서 누구나 그 첫 순간부터 땅을 치고 가슴을 쥐여뜯으며 오열을 터뜨렸고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비보가 사실이라는것이 확인된 다음부터는 가장 비통한 심정과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매일같이 낮에 밤을 이어 조의를 표시하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유훈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 중심부의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울음을 터뜨리며 첫 조객들이 나타난것은 7월 9일 비보가 전해진지 30분정도 후부터였다.

조객들의 수는 분과 시간마다 늘어나 이날 오후 2시경에는 벌써 동상앞 마당과 층계들을 메우고 아동백화점앞 도로에까지 차고넘쳤다.

다음날 첫 새벽에 이르러 그 수는 벌써 30만에 이르렀다.

9일 밤 무심한 하늘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뿌려서인가 평양에는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그러나 눈물을 삼키며 만수대언덕으로, 만경대고향집으로, 창덕학교로, 룡남산마루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결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늘어났고 그것은 다음날 아침과 낮에로 그대로 이어져 화환과 꽃다발을 든 조객들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가 당한 처음으로 되는 최대의 비극사와 함께 력사상 처음으로 보게 되는 끝없는 조객들의 행렬은 우리 나라의 지방도시들과 농어촌마을, 림산마을 등에서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애도기간이 시작되여 10여일이 되는 7월 20일 아침 8시현재까지에만도 우리 나라에서는 연 2억 1,200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 석고상, 초상화,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현지교시판에 찾아가 조의를 표시하였으며 그중 7,000만여명이 수령님의 령전과 동상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가 정중히 안치되여있는 금수산의사당으로는 7월 11일부터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각급 기관 일군들과 해외동포들이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끝없이 찾아갔다. 그 수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났다.

국가장의위원회는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도행사일정을 3일간이나 연기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7월 19일 수도의 수백만 시민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100여리 연도에 비통한 눈물을 뿌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였으며 20일 오전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하지만 추도대회가 거행된 이후에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슴사무치는 그리움,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는 각계층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대오는 또다시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평양시와 전국각지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을 찾아 대하처럼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추도대회가 진행된후 21일까지 36시간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과 중앙기관, 시급기관 일군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 지식인들, 청소년학생들의 수는 20여만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애도기간의 추도행사들이 끝난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전국각지에서 낮과 밤, 이른새벽에 동상을 찾아 다시금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충성을 맹세한 각계층 인민들의 수는 수백만을 헤아렸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수반들이 사망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그처럼 슬퍼하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되는 조의를 표시한 사실은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는 위대성과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총련의 조의대표단 성원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외국의 벗들



자애로운 어버이대원수님을 잃은 비통감을 안고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평양시내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

만경대고향집을 찾아 어버이수령님을 목메여부르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있는 인민들





가장 심심한 애도의 마음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은 평성시민들



불멸의 사적이 깃든 버드나무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열을 터뜨리고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슬픔과 아픔을 금치 못해하는 **3**대혁명붉은기 **3월26일**공장 로동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 개성시민들은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과 같은 놀랍고 비통한 소식에 접한 함흥시민들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비통한 심정을 누를길 없어하는 혜산시민들



슬픔을 이기고 조국통일성업에 더 힘차게 나서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7천만 우리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여러가지 추모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남조선과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각종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애도기간 남조선각지에서는 반민족적이고 례의범절도 모르는 김영삼일당의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추도모임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서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추도식을 엄숙히 진행하였다.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3분간 묵도하였다. 추도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쳐오시며 민족사와 인류사에 영구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께 생전에 그처럼 절절히 바라셨던 조국통일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더욱 미여지는 가슴을 누르며 차례로 분향하고 삼가 영결의 큰 절을 드리였다.

이날 《한민전》 중앙위원회산하 각급 조직들의 지도핵심들과 전위투사들도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는 추도의식을 진행하고 민족의 삶과 투쟁의 희망이시고 기둥이신 어버이를 잃은 애석하고 절통한 마음이 더욱 북받쳐오름을 금치 못했다.

애도기간 남조선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리념연구조직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성인, 종교인, 재야인사등 각계각층의 애국적투쟁단체들에서도 한없는 슬픔과 비애감을 안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영결하는 각이한 형태의 추모의식들을 진행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조문을 보내왔고 곳곳에서 빈소를 차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조의사절단을 북에 파견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는 조문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7월 16일 조문대표단을 판문점으로 떠나보내였으나 남조선당국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들을 모두 련행하였다.

100만학도조직인 《한총련》은 7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총련》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한총련》을 비롯한 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조문단을 평양에 파견할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총련》은 추모, 애도 행사들을 진행하였으며 100여개 대학정문에 일제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조의프랑카드를 내걸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자보를 발간하여 내붙이고 추모인쇄물을 배포하였다.

교도소의 장기수들은 애도단식을 단행하였다.

애도기간 해외각지에 사는 조선동포들도 절통감에 잠겨있었으며 해외동포단체 책임일군들과 인사들이 조국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진 때로부터 지난 애도기간에만도 60여개의 해외동포조의대표단과 해외조직대표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와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남대 구내에 차려놓은 분향소

또한 중국과 로씨야, 독일, 미국에 있는 근 70개의 해외동포단체들과 수백명의 해외동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령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화환들을 진정하고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자기들의 절통한 심정을 담아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는 해외동포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것 같다.》고 하면서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비애에 잠겨있었다.

애도기간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은 참기 어려운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내고 조국통일을 위해 전민족이 대단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반드시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하여 서울의 한양대학교 게시판에 나붙은 대자보



조문을 위해 판문점으로 통한 북행길에 나선 남조선의 기독교인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여 대학생들이 제작한 프랑카드와 자료들

《세계는 전설적인 위인을 잃었다》

세계적인 위인의 서거는 한 나라의 경외를 벗어나 세계적판도에서 비통한 심정을 자아내는 법이다. 하기에 7천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세계정치의 대원로로서 현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세상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는 온 지구촌을 류례없는 슬픔, 가장 큰 슬픔으로 차넘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깨진것과 같은것이다.》,《파란많은 력사의 흐름속에서 거성이 떨어졌다.》,《세계는 전설적인 위인을 잃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의의 서거에 즈음하여 세계각국의 령도자들과 정당, 단체들, 저명한 인사들과 량심적인 언론들은 이렇게 평하면서 그분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1994년 7월 9일 낮 12시 중대방송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관한 우리의 보도가 나가자 세계각국의 통신, 방송과 신문들은 일제히 그분의 서거를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하여 널리 보도하면서 시간과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라지오와 텔레비죤들이 정기방송프로를 중단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방송원들이 침통한 어조로 전하였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방송의 정기보도를 도중에서 끊고 그분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전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였으며 많은 신문, 방송들이 애도기사를 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대한 비보에 접하여 온 세계는 경애하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비탄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민들과 슬픔을 같이하면서 국가수반의 정령과 정부결정 등으로 조의기간을 설정하고 분향소들을 설치하며 가무를 중지하고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 중앙기관건물들, 이름난 광장과 공공건물 등에 조기들을 게양하였다.

7월 15일에는 유엔본부 청사에도 조기가 띄워졌었다.

근 50년동안이나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계시면서 조선혁명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의 서거에 즈음하여 세계각국의 정당들과 당의 령도자들은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가며 조전을 보내여왔으며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찾아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시하였다.

집계된데 의하면 애도기간 세계의 160여개 나라에서 근 500명의 국가, 정부 수반들과 당령도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에 조전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데 대한 비통한 소식이 전해진 첫날에만도 중국의 당 및 국가 령도자들과 캄보쟈국왕, 스위스련방대통령, 꽁고대통령을 비롯하여 조전을 보내여온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100여명에 달하였다.

또한 정계와 군부의 고위인물들, 사회계, 학계, 경제계 등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서 보내여온 조전들은 3,000여건에 달한다.

심지어 미합중국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카터, 일본수상 등 우리와 국교관계가 없는 나라 정상들도 조전을 보내고 조문성명을 발표하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슬픔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커가고있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캄보쟈왕국 국왕,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하여 60여명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170여명의 정당지도자들이 해외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찾아 조의방문하였다. 또한 세계각국에서 수천개의 대표단과 단체들, 각계층 인사들 그리고 2,000여명의 외교대표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찾아 조의방문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의방문시에 조의록에 《우리는 조선과 사회주의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잃었습니다.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세계각국에서는 또한 국가수반 등을 비롯하여 각계층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가장 비통한 심정을 담아 금수산의사당과 만수대언덕,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3,300여개의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불멸할것입니다》라고 쓴 댕기들이 드리워져있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전한 세계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애도기간 그분을 추모하는 특집들을 하였는데 그 나라수와 출판보도물은 120여개에 700여종이나 된다.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과 중앙추도대회광경을 7월 19일과 20일 거의다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의 지난 10여일간 그분을 추모하여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는 추도대회와 추도회 등 추도행사들을 진행한 나라만도 160여개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세계는 사상과 리념,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 인민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각방으로 그분의 서거를 애도하고 추모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비길데없이 높으신 국제적권위를 보여주는것으로서 그분은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정부 수반들과 당령도자들의 조전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주석께서 애석하게도 병으로 서거하셨다는 소식에 접하여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조선민족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신 한생이였으며 중조친선을 마련하시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투해오신 한생이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을 잃은것으로 되며 저에게도 한분의 친근한 전우와 동지를 잃은것으로 됩니다.

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등 소 평

1994년 7월 9일 베이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애석하게도 서거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들은 더없이 비통한 마음을 안고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심심한 애도와 가장 진심으로 되는 위문을 보냅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세련된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과정에 조선인민을 이끄시여 가난하고 락후하였던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생을 오로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독립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에 바치시여 불멸의 력사적공헌을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일관하게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중조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중국 당과 정부, 중국인민으로 하여금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수 없게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셨지만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영원히 그이를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의 뜻을 이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을 훌륭히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기를 굳게 믿습니다.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은 계속 공고발전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 택 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 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교 석
1994년 7월 9일 베이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
김정일원수각하

경애하는 공화국수령이신 원수각하

나는 나의 부인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왕후와 함께 가장 커다란 슬픔과 끝없는 절망 속에서 조선 민족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고 수천년 조선력사의 가장 걸출한 영웅이시며 조선의 영원한 해방자이시고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을 위한 참다운 지상락원을 일떠세워주신 가장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자주, 자유,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인류의 태양이시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쁠럭불가담을 위한 투쟁의 백전백승의 령도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캄보쟈 민족과 인민, 캄보쟈왕국 국회와 정부, 캄보쟈왕국 군대와 캄보쟈왕실가문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와 그리고 **김일성**주석대원수각하의 가장 존경하는 일가분들, 조선 민족과 인민,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에 가장 심심하고 슬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친형제로, 가까운 전우로 된 더없는 특전과 크나큰 영광을 지니고 1970년부터 헤아릴수 없는 은혜를 받아온 나는 그이의 서거에 대한 가슴아픈 소식에 접하여 형언할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있습니다.

나는 가장 저명하신 대원수님과 끊을수 없는 특별한 신뢰와 우애의 관계를 맺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령이신 **김정일**원수각하와 그리고 용감한 형제적조선인민과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과 커다란 슬픔을 함께 나누는바입니다.

캄보쟈왕국은 가장 친근한 벗이시며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구국투쟁에 변함없는 고귀한 지지를 보내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를 가장 정중히 추모하기 위하여 3일간의 국가적인 애도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이신 원수각하께 친근한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쟈국왕
노로돔 시하누크
1994년 7월 9일 베이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우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소식을 매우 슬픈 마음으로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70여년동안 일본식민주의와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서 현명한 령도력과 확고한 결심, 원칙과 의지를 지니시고 특출한 역할을 수행하시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이께서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울이신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념원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는 날 전체 조선인민은 만경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하신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엄한 경의를 표할것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쁠럭불가담운동과 모든 정의의 위업, 자유와 평화, 인민들의 복리를 견결히 옹호하시고 세계사회주의사상에 기여하시였으며 조선반도정세의 안정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김일성**동지와의 상봉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우리 혁명과 인민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시해주시고 꾸바인민이 나라의 존엄과 자결권을 고수하고 침략을 반대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과 의지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경제과학기술협조를 위한 모든 방안들을 지지하여주신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맞서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더 단결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우리 혁명 지도부의 모든 동지들은 사회주의의 견결한 옹호자이시며 진실하고 충실한 친우이신 **김일성**동지를 잃은데 대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모든 가르치심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새 세대의 조선투사동지들에게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근면한 조선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으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단결, 진보를 위한 희망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꾸바는 반제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이 보내온 화환들의 일부


중국의 등소평동지가 보내온 화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보내온 화환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보내온 화환


캄보쟈왕국 국왕이 보내온 화환


팔레스티나국가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위대한 9월1일혁명의 지도자가 보내온 화환


인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국가수반이 보내온 화환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인민들사이의 형제적관계에 계속 충실할것이며 친근한 조선인민과 함께 사회주의전취물을 계속 고수해나갈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당신께와 온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시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1994년 7월 9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것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과 미합중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조문성명을 발표하였다.

빌 클린톤은 조문성명에서 나는 미국인민들의 이름으로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즈음하여 북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조의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두 정부사이의 회담재개를 위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력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회담이 적절하게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지미 카터는 나와 로잘린은 뜻밖에도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이의 유가족들과 북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애도의 뜻을 표시합니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이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페하와 왕후페하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꾸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웰남 당, 국가, 정부 공동대표단이 웰남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 엄숙히 거행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1994년 7월 19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의 영결의 시각을 앞둔 금수산의사당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령구발인에 앞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에 묵상하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인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그밖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이 참가하였다.

영결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가 서서히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결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령구차는 수령님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 앞을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차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의 배동하에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하여 수백만명의 각계층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운집해있는 연도로 향하였다.

거리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고 조기들이 곳곳에 띄워져있었다.

령구차행렬의 선두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장중하게 주악하는 군악대를 태운 차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항일혁명투사일동 그리고 여러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과 당들에서 보내여온 화환들을 비롯한 많은 화환들을 실은 차들이 섰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형초상화가 자동차에 모셔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자동차뒤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된 대형화환이 세워진 차가 따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는 조선로동당 기폭에 덮이여 꽃속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차행렬은 룡흥네거리로부터 혁신거리, 영웅거리, 천리마거리, 통일거리, 청년거리와 평양산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앞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 평양대극장, 승리거리, 개선문거리에 이르는 100여리 연도를 누벼나갔다.

전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와 애도의 마음이 구름처럼 밀려온 평양의 하늘땅은 삽시에 비장한 곡성으로 가득찼다.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어버이수령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팔을 들고 울음터치는 녀인들과 소년단원들, 하늘땅이 꺼졌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늙은이들, 서로 부둥켜안고 오열을 터뜨리는 사람들,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닦고닦으며 어버이의 인자하신 모습을 다시한번 새기고있는 일군들, 남녀로소 누구나 할것없이 모든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리움과 애석함으로 몸부림쳤다.

수도의 전체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비통감에만 젖어있은것이 아니라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도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민족의 태양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목메여흐느끼는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령구가 안치될 장소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결의 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되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위대한 수령님과의 마지막영결의 시각을 앞두고 령구에 엄숙히 경례를 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명예위병대가 24발의 조포와 조총을 쏘았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추도식이 공화국의 각 도, 시, 군들과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부대들에서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차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 앞을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차행렬을 맞고 바래우는 **김일성**광장은 크나큰 슬픔속에 잠기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해외동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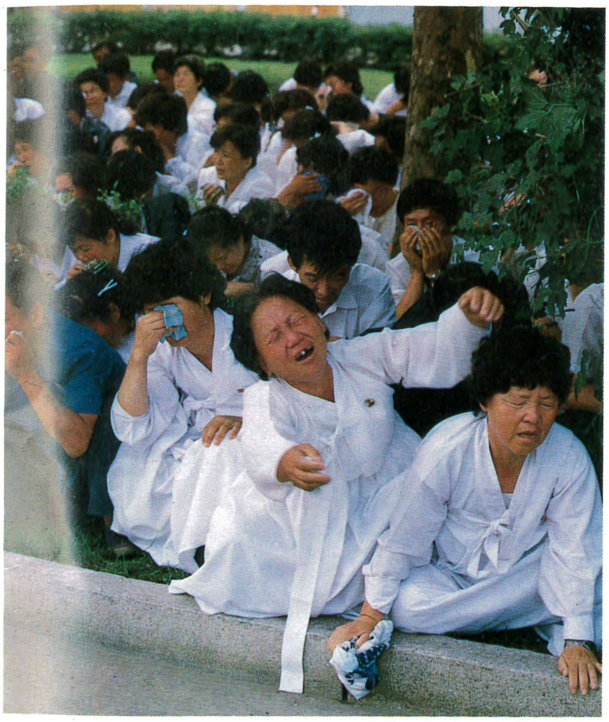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평양시민들의 크나큰 슬픔속에 개선문거리를 누벼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평양시민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천리마거리를 지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게 된 비통함을 참을수 없어 가슴치며 통곡하는 평양시민들



영결의 비통한 심정안고 몸부림치는 시민들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룡흥네거리로 령구차가 서서히 지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인민군장병들



아버지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며 연도에 달려나와 끝없는 설음에 잠긴 학생소년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엄숙히 거행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1994년 7월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도대회가 거행되는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 **김일성**경기장, 개선문광장, 전승광장, 역전광장 등 시내의 광장들과 경기장, 학교운동장들은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불행을 안고 가슴을 치며 모여온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남녀로소 수백만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추도대회장은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여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과 절통감에 잠겨있었다.

김일성광장 주석단정면에는 검은테를 두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광장국기게양대에는 조기들이 띄워져있었다.

광장량옆 고층건물벽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천년만년 길이 빛나리라!》,《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오전 10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인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그밖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총련의 일군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동지,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해외교포인사들,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리정상대표가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계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영웅들과 애국렬사유가족들, 평양시와 구역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총련의 조의대표단, 해외교포인사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의 벗들과 우리 나라주재 각국 외교사절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추도대회시작을 선언하자 묵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추도대회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우리의 어버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도하였다.

추도대회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추도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정무원 김영남부총리가 하였다.

이어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 군인, 해외동포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부총리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 온 세계 진보적인류와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다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유훈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빛내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것이라고 한결같이 맹세하였다.

연설들이 끝나자 《인터나쇼날》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포가 발사되고 고동이 길게 울리였다.

추도대회가 진행된 20일 낮 12시 정각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이 3분동안 묵도하였으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길게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추도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생의 로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철통같이 다지며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서 지니고있는 자신들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를 반드시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주석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피끓는 심장의 맹세

7천만 겨레의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동지**께서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다. 조선이 겪는 이 슬픔을 차마 그대로 볼수가 없어 하늘도 눈물을 흘리고 초목도 비애에 젖어 몸부림친다.

다시는 뵈올수 없는 길로 떠나가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해 령구앞으로, 동상앞으로 달려온 평양시민들과 지방인민들, 수륙만리 머나먼곳에서 불원천리하고 평양을 찾아온 해외동포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어버이수령님! 정녕 이렇게 가시렵니까. 이제라도 다시 돌아서실 길은 없으십니까.》

《수령님! 수령님은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피타는 소원을 들으십니까. 못가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인민들이 목놓아 터치던 애절한 부르짖음이 지금도 우리들 가슴가슴의 피를 태운다.

아, 단군이래 5천년을 흘러온 민족사에, 유구한 인류력사에 과연 그 언제, 그 어디에 이처럼 크나큰 상실과 슬픔이 있었던가.

세월이 천만년 흐른다 해도 결코 가실수 없는 이 크나큰 슬픔,

이것은 자기 수령과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력사에 류례없는 숭엄한 현실이며 자기 운명의 수호자를 잃고 터뜨리는 절통한 감정의 분출이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이 크나큰 슬픔은 단순한 비애가 아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손실과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당했다고 결코 비관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보라.

혁명의 앞채를 떠멘 로동계급은 로동계급대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협동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과학과 기술로 조국을 받드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대로, 일군들과 청년들과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그들대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며 충효일심의 맹세를 다져나간다.

수령의 귀중함을 알고 수령을 잃은 상실의 아픔에 가슴을 치는 인민은 절통한 슬픔을 누르고 일떠설줄 알며 수령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습니다. 그의 운명이자 동무들의 운명이고 조국의 운명입니다. 수령과 당과 인민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천만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뜨거운 결의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년만년 건강하시옵기를 바라던 우리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빨리 가시다니…

정말 원통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그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 부디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합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깊이 다지는 신념의 맹세, 의지의 맹세, 충성의 맹세이다.

김정일동지!

그분은 우리의 태양, 그분은 단결의 중심, 그분은 사회주의기치, 그분은 우리의 운명, 영원한 하늘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민, 전군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빛나는 혁명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떠나가신 수령님앞에서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도리이고 혁명적본분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그분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변함없이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갈것이다.

비애와 곡성이 넘쳐흐르던 이 나라 강산에 새로운 혁명적기상이 억세게 나래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를 다지고있는 군인들

쇠물을 끓이는 용해장과 석탄산을 쌓아가는 지하막장, 오곡을 가꾸는 전야… 그 어느 초소, 그 어느 일터를 가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틀어쥐고 기백있게 신심에 넘쳐 전진하는 우렁찬 메아리가 하늘땅을 진감한다.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힘과 용기로 바꾸어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 우리 인민의 이 장엄한 진군이 있기에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발은 더 높이 펄럭이고 혁명과 건설은 승승장구의 일로를 걷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더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려던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분출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진군길, 주체의 진군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장엄한 모습, 이 억세인 모습을 보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신심과 용기를 얻고 사회주의재건위업과 온 세계 자주화의 새 봄을 가꾸어나가는 길에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당면 최대의 지상과제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시고 절통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백배천배로 더 강해졌다.

우리는 이것을 범민련의 한 일군의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나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민족의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킴으로써 90년대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굳게 결의한다.》

이것을 어찌 그 한사람의 결의만이라 하랴.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여!

하나의 맥박, 하나의 호흡,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발걸음으로 앞으로 매진하자.

그렇게 될 때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로, 민족단합이 아니라 북남대결의 길로, 민족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의 길로 나가는 사대매국노들은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그를 위한 전민족대단결실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자.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령전에서 다진 불같은 충성의 맹세를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리현협동농장 농장원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할 굳은 맹세를 다지는 청년학생들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며칠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건강하여 혁명을 계속하자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던 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우리들의 곁을 떠나시다니 이게 어인 말입니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저없이 언제나 혁명의 위기를 앞장서 헤쳐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마음의 기둥이였고 삶과 투쟁의 기치였습니다.

항일의 그날에나 새 조국 건설의 나날, 조국해방전쟁시기나 전후복구건설시기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장구한 나날 언제한번 편히 쉬시지도 못하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길데없는 그 로고를 생각하면 경모의 정은 더더욱 높아짐과 동시에 가슴아픈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금시 터질것만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피타는 맹세를 다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절절히 당부하신대로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항일의 그날에 우리가 수령님을 결사옹위한것처럼 그분을 충효일심으로 영원히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부디 안심하시고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항일혁명투사 전문섭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겠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의 령구앞에 놓인 대원수견장과 대원수별을 보면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꿈을 꾸어도 대원수복을 입으시고 통일된 광장의 단상에 오르시여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7천만 겨레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꿈만 꾸어온 저희들인데 대원수복을 입으신 수령님을 뵙지 못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통일의 광장에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실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엄숙히 맹세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십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오고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전군이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부디 안심하십시오.

조선인민군 차수 김광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겠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선의 그날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도 우리 강선땅을 먼저 찾으시여 우리 강선의 강철전사들을 새 조선 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그처럼 어렵고 복잡했던 준엄한 전후시기에도 1만톤의 강재증산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리마운동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여 우리 강선을 천리마의 고향이 되게 하여주시였다.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품속에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 로동계급의 핵심부대로 튼튼히 자라났고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저는 나이가 많은 오늘에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고문지배인으로 일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다.

저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강철증산으로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고문지배인
리재천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고

숙천의 숫눈길을 밟으시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시고 주체농법의 대화원을 온 나라에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올해에도 전국농업대회에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를 보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며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온천벌의 이름없는 협동농장까지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풍년가을에 또다시 모시고 기쁨을 드리자고 했는데 이런 슬픔으로 바뀔줄이야 그 누가 생각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밝으신 모습으로 살아계신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시자.》

이것은 슬픔을 당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웨침이고 한결같은 결의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도안의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이 땅우에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여나가겠다.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로력영웅 김락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김 철

아니다
수령님은 가지 않으시였다
수령님은 가지 않으시였다
수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어찌
우리 수령님께서
그 큰 호흡을
그 뜨거운 심장의 울림을
아주 멈추셨으랴
어찌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눈물의 바다, 비애의 바다우에
퍼붓는 비줄기여
너마저 하늘의 슬픔을 더하지 말라

무겁게 드리운 조기여
추도곡의 선률이여
꽃이여, 물기어린 다발이여
수령님 아주 떠나셨음을
너희들 부정하라

아아—
5천년 민족사가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

80여성상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서는 휴식을 모르신
우리 어버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인민의 행복위해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해
일하시고 또 일하신 우리 수령님

아니다
수령님은 우리곁을 떠나실수 없어라
수령님 무어주신 당이 있고
수령님 마련하신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수령님의 인민
수령님의 군대가 이 땅에 있는데
어찌 수령님께서
우리를 두고 가실수 있단 말인가

수령님의 뜻, 수령님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수령님의 숨결, 수령님의 박동을
그대로 안고계시는데
어찌 수령님이 아주 가셨다고 생각할수
있으랴

눈물의 바다, 비애의 바다우에
태양은 더욱 붉다
퍼붓는 소나기, 가슴찢기는 아픔을 거쳐
천만심장은 더욱 굳게 뭉친다
김정일동지, 그이의 두리에!
김정일동지, 그이와 더불어
수령님은 계신다!
수령님은 계신다!

조국통일대업
주체위업완성의 성업과 함께
수령님의 존함, 수령님의 영상은
우리 가슴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니

아아—
수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앞표지—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고있는 근로자들
뒤표지—우리 인민의 충성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글발을 새겨넣은 탑

발행소: 등대사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인 쇄: 1994년 7월 25일
발 행: 1994년 7월 30일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값 3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
영원히우리와함께계신다
3대혁명